

# 韓國經濟의 體質과 進路

張 基 榮

(韓國日報社社長)  
(前 經濟企劃院長官)

## 一. 序 論

오늘로 10周年을 맞이하는 서울大學校 行政大學院, 尊敬하는 李漢彬院長, 教授, 學生 여러분!

오늘 우연히 本人이 平素에 博士님들이 서서 講議를 하시는 이 강단에 서게 된 것을 저로서는 前無後無한 一身上의 큰 名譽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李院長께서 紹介를 하셨지마는 過去에 自己가 한 일에 對해서는 本來 이야기를 하지 않는 법이라고 합니다. 結局 그런 말을 할 것 같으면 自畫自讚의 어리석음에 빠지기가 쉽고 소위 敗軍之將은 不言兵事라는 史記의 가르침에 어긋나는結果가 되기 쉬운 것입니다.

저는 지금 들어오다가 저기 學術記念講演이라는 빼울 써붙인 것을 보고 좀 멀렸습니다. 學術講演을 할 資格이 없는데 큰일났다. 이렇게 생각도 하였지만 어쨌던 이 Key Note Speech를 元來 李院長께서는 高度成長의 經驗과 戰略이라는 좀 個性이 있는 Aggressive 한 speech로 하여 달라는 要請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저는 過去에 政府에 있었던 關係로 아직 오늘 韓國政府의 여러가지 經濟政策이라든지 또는 過去에 있었던 일에 對해서 말을 할 完全한 言論의 自由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政府에서 일을 한 사람은, 여러분중에는 혹시 現在 政府에서 일을 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신것으로 짐작이 되는데 政府를 그만 둔 다음에는 2年동안은 有口無言,沈默을 지키는 것이 不文律처럼 國際的으로도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의 政治的道義라고 할까 責任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刑期 2年에 6個月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우리나라 最高學府의 學問의 전당인 이 象牙塔에 들어와서 여러분의 學問과 學術研究의 自由의 그늘 밑에서 平素에 하고 싶은 말을 率直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韓國經濟의 體質과 進路에 對한 學術的인 解說, 다시 말하면 Academic 한 또는 theoretical

한 comment 나 analysis 는 또 專門學者나 教授분께서 해 주실 분이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參考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學術的인 內容이 아닙니다. 제가企劃院長官으로서 3年5個月동안 특히 그期間은 우연히 소위 우리 經濟가 離陸, take-off 을 한期間이었습니다.

그것을 數字的으로 말씀드리자면 輸出額에 있어서는 一億달라 未滿이던 것이 3億5千萬달라를 넘었고 또, 貯蓄에 있어서는 400億원이던 것이 4倍半이나 되는 1800億원에 達했고 政府保有 달라는 1億달라臺에 있던 것이 3億달라를 넘었고 經濟安定의 가장 重要한 Key, 基調라고 할 수 있는 外換率이 우리가 解放後 過去 20年동안 이 外換率의 引上, 上昇을 둘러싼 惡循環때문에 가진 고초를 겪은 그 外換率이 이 期間에 있어서는 3年5個月間에 있어서 270 원臺에 머물며 安定되고 物價上昇率에 있어서도 都實物價指數는 大體로 6% 內外 또 消費者物價指數는 大體로 年間 10% 內外線에서 維持해 왔던 것입니다. 그 期間에 있어서 모든 政策을 決定하는데 모든 새로운 政策을 推進하는데 있어서의 環境, 目的, 與件, 條件等 所謂 經濟企劃院長官의 現在 政府組織法上의 機能인 모든 政策調整의 實情, 表面上 또는 그 裏面에 있어서의 여러분이 밖에서 짐작할 수 없었던 現實的인 實務的인 隘路나 苦衷 이러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行政을 研究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오히려 價值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本來 오늘의 演題는 動的인 것으로 動的인 題目으로 院長님의 要請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政府의 냄새가 아직 난다고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그런 個人的인 制約때문에 저로서는 韓國經濟의 體質이란 그런 靜的인 題目을 냈던 것인데 不得已 院長님의 要請도 있고 해서 compromise 해가지고 韓國經濟의 體質과 進路, 이렇게 靜的, 動的을 兼해서 이런 題目을 가지고 말씀드린다는 것을 理解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序論은 이 정도로 말씀드렸고 다음으로 韓國經濟의 體質論 特히 韓國經濟의 體質의 脆弱點에 對해서 特히 強調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는 過去 經濟企劃院長官當時의 모든 政策決定과 調整의 戰略經驗을 率直히 말씀드리고 셋째로는 通貨와 物價安定에 對한 저의信念, 우리의 共同의 信念이기도 합니다만 韓國의 物價水準에 對한 特質을 兼해서 說明드리고 계속해서 1965年 9월 30일에 단행한 金利現實化政策은 왜 했는가 그 뒤에 內資調達의 隘路와 方策은 무엇인가 지금 是非가 많은 現金借款의 本質은 어떤 것인가 이런것을 차례로 말씀드리고 계속해서 우리 經濟發展의 二大支柱인 國際收支의 均衡 國內財政收支의 均衡의 그 重要性과 더불어 外換率의 安定과 그 重要性을 強調하는 同時에 지금 一部에서 대두되고 있는 換率引上論에 對한 反對하는 立場을明白히 말씀드리고 여섯째로 二次大戰以後에 國際經濟協力의 理念과 方法의 潮流에 對해

言及하고 계속해서 五·三, 六·八 선거후에 아직 제가 政府에 남아 있을 당시에 선거를 통해서 알게된 國民의 輿論을反映한 大分配政策을 中心으로 한 15개의 새로운 經濟政策을立案했던 것을 그 内容을 說明드리고 끝으로 政府에 있었던 所謂 獨走3年5個月의 回顧, 回想, 그 感想을 말씀드리는 것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二. 韓國經濟의 體質과 脆弱點

韓國經濟의 體質이란 대체 어떤 것인가? 지금 急速히 高度의 成長을 이루고 있는 體質은 어떠한 特徵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우리 경제는 지금 產母와 같은 體質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즉 產母가 아이를 낳은 產後와 같은 그런 體質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體驗이 있으신지 모르지만 產母의 體質은 무르고 또 若干 浮症이 있습니다.

이 產母는 아이를 많이 낳는 多產質 系統이기 때문에 많은 아이를 낳고 잉여를 먹여 이를 테리고 있을뿐 아니라 現在도 또 임신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立場에 있습니다.

最近에 完成된 모든 工場, 이것이 다 그 產母가 낳은 어들이며 또 建設中에 있는 모든 工場들이 다 임신중에 있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工場들이 제가끔 設備資金이 모자란다. 運營資金을 달라, 젖을 달라고 지금 아우성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 政府는, 政治家는 새로운 政治的인 意慾 또는 野心에서 새로운 建設計劃을 자꾸 계속해서 推進하고 있습니다. 이런 體質속에 모든 일을 推進해 나가는 데 E.P.B.의 苦悶이 있었던 것입니다.

임신하고 있는 產母自身의 營養도 必要하고 또 나이가 다른 여러 아이들의 영양공급도 時急하고 이 아이들을 하루속히 成長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產母의 體質을 強化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기르기 위해서도 어머니의 젖만 가지고는 이 아이들을 기를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牛乳도 먹여야 하고 羊젖까지도 먹여야 하고 輸入 밀크도 먹여야 하고 急한때는 直接 Linger 注射까지 놓아서 營養을 補充해야 합니다. 韓國經濟의 體質은 또 다른 一面에서는 제가 다른 곳에서도 말씀드린 일이 있음니다마는 思春期에 들어선 15·6 세 少年的 wild한 體質의 一面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少年은 食慾과 發育이 旺盛하지마는 아직 未熟하며 아직 生產能力을 가질 수 있는 成長期에 다다르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消費性만 一方的인 터 驛路가 있는 것입니다. 그 中에는 紅疫과 마마를 치루지 않은 사람이 많습니다. 지금 紅疫, 마마를 치루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元來 思春期에는 공연한 不平과 不滿도 旺盛해지는 것입니다. 몸에 여드름도 많이 나고 또 毒을 내뿜게 됩니다. 이러한 狀態가 바로 高度成長과 더불어 몸부림치고 있는 韓國經

濟의 實情이라고 나는 斷定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에서는 國際競爭力を 體得하기 위하여 經營合理化를 위해서 必死的인 努力으로 文字그대로 피눈물나는 赤字와 싸우고 있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소위 出血成長을 敢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現象들은 다 자라기 위한 體質을 強化하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고무적이며 기쁜 現象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개중에는 너무 慾心을 내고 無理를 해서 病이 나서 入院治療를 해야 할 程度로 體質이 弱化된 事業도 없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요즘 新聞紙上에 자주 나고 있는 不實企業體의 銀行管理問題, 銀行管理가 必要한 不實企業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다지 놀랄만한 事實이 아닙니다. 以上 말씀드린 韓國經濟의 特殊한 成長期體質에서 專門의立場에서 볼 때 그렇습니다.

外國에서도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高度成長을 해오는 過程에 있어서는 隣國인 日本에서도 어떤 때는 所謂「다지·라인」을敢行하던 그 前後에는 거의 大部分의 復興企業體가 一時 銀行管理를 받은 적이 있었다고 記憶합니다. 銀行에서 入院治療를 함으로써 가장 合理的이고도 低廉한 治療費로 短期間에 體質을 改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은 겪어야 할 紅疫이나 마마를 銀行에 入院에서 겪고 다시 튼튼한 健康體質로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銀行管理를 하게 된다고 해서 덮어놓고 놀랄 것이 없고 또 不實企業體가 생긴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우리 經濟의 發展이 잘못되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單純한 생각이라고 나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世上에相當한 소음이 있는 것은 思春期에 있는 많은 少年들이 모두 다 두개의 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소년들이 지혜롭고 頭腦는 明哲합니다.

한개의 입은 영양을 取하는 입이고 또 하나의 입은 不平不滿을 呼訴하고 批判하는 能力を 가진 입들입니다.

그러나 이 少年, 이 年少한 事業體들은 어루만지기만 해서는 오히려 強한 體質과 均衡된 體格을 가진 人格者로 성숙시키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少年時節에는 野心과 慾心도 많은 法이지만 이것을 다 들어줄 수는 없읍니다. 깊은 물에 떠밀어 넣어야 스스로 해엄을 칠 수 있는 方法을 배웁니다.

그러한 意味에서 一部 年少한 事業體들이 많은 資金上の 苦難을 겪는 것도 價值있는 일이며 새로운 企業經營과 經驗의 資產이 생기는 것이라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들은 몸이 기름지기 전에 骨格이 먼저 튼튼해져서 우리 國民經濟에 基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所謂 最近에 흔히 쓰이고 있는 開發途上國家라는 用語, 中進國이라는 것은 思春期에서 成

年期까지를 말하는 것이라고 나는 봅니다.

짧은 時日내에 많은 아이들을 生產한 產母를 위해서도 生產된 그 아이들을 위해서도 우리들의 日淺한 새로운 事業들은, 工場들은 빨리 再生產力を 가질 수 있는 나이까지 자라야 합니다.

닭이 알을 낳을 때까지 젖소가 새끼를 배고 우유를 짤때까지의 그 飼料값이 그 施設財라고 할 수 있는 암탉과 젖소의 代金과 鷄舍와 牛舍의 값과 더불어 工場, 牧場, 施設資本의 固定投資 即 資金에 關한 問題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알을 낳을 때까지 새끼를 뱉을 때까지 어떻게 인프레를 일으키지 않고 物價를 올리지 않고 그 生產이 늘때까지 資金을 供給하고 벼텨 나가고 기다리는가 여기에 金融經濟政 即 物價安定策, 安定과 成長을 同時에 이룩하지 않으면 안되는 政策의 要點이 있고 隘路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世界에서 몇째안가는 가장 天然資源, 自然資源이 貧弱한 나라입니다.

또 所謂 民族資本 即 民間資本이 없다고 해도 過言이 아닙니다.

이것은 勿論 日帝 植民地政策의 影響도 받고 6·25事變에 依해서 破壞된 關係도 있읍니다라는 그 외에 여러가지 理由가 있읍니다. 또 우리는 技術도 不足합니다.

다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勞動力 即 低廉하고 豐富하고 良質의 資質을 가지고 있는 勤勉한 人的資源뿐인 것입니다.

이러한 環境과 與件下에서 우리 經濟를 現代化하고 國際經濟界에 進出할 수 있는 競爭力과 生存力を 賦與할 수 있는 手段 方法을 뚫고 나가는 길은 한가지밖에 없읍니다.

外國의 借款, 外國의 資本, 外國의 技術을 재빨리 빌려올 道理밖에 없는 것입니다. 所謂 「借款成長」—빛으로 成長하는 方法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國家經濟도 하나의 事業입니다. 事業을 잘하는 사람은 빛을 잘 빌려다가 이것을 잘 利用하면 되는 것입니다. 資金運用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것과 조금도 原理가 다를 것이 없다고 하는 그런 信念밑에서 일을 해온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潛在的인 労動력을 놀리지 말고 그 價值를 하루속히 生產化하는 것이 用語가 좀 이상합니다마는 労動력을 附加價值化하는 것, 이것만이 唯一無二한 우리의 生產을 늘리고 所得을 올리고 國際分業의 分配를 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落後된 經濟를 復興시키고 國民生活의 水準을 向上시켜 나아갈 道理밖에 없는 것입니다.

現政府가 이러한 政策을 推進시키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말만으로는 表現할 수 없는 여러 가지 苦心慘怛한 過程이 있었읍니다.

一部 政治家, 學者 學生도 反對하고, 大衆, 勞動者의 反對에 까지 부딪쳤읍니다. 一部 反對하기 위한 反對와 煽動을 물리쳐야 했고 現代國際經濟協力構造를 모르는 사람들을 說得하

는데 힘이 들었고 似而非의 非近代的 愛國, 鎮國主義者들과 싸우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 덤에 놓고 빚을 두려워 하는 消極主義者들의 近視眼의인 反對論에 골치를 앓았습니다.

빚을 두려워할 것만은 없습니다. 빚도 늘고 資產도 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近代經濟 信用社會體制입니다.

그러나 勿論 그 資產이 生產財라야 하고 輸出施設이라야 되고 輸入代替施設이어야 되는 것은 勿論입니다.

빚은 本來 그 元金을 全部 갚을 必要是 없는 것입니다. 저는 빚은 元金은 갚을 必要가 없으며 利子負擔力만 있으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利子를 갚으면 그 債權者는 더 좋은 條件으로 貸付를 해주기 마련입니다. 제가 18년 동안 銀行經驗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겁니다. 이것이 債權者の 心理입니다.

所謂 外貨 總所得額에 10%를 債環資源에 充當하는 것은 健全한 方法입니다. 그러한 10% 論도 있읍니다마는 本來는 利子負擔力이 빚을 질 수 있는 限界를 定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빚은 利子를 잘 갚아 나가면 그 以上的 좋은 條件으로 새로 更新해서 더 많은 金額의 貸付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元金은 갚을 必要가 없고 balance에 있어서 兩面이 늘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負債가 늘고 資產이 늘고 그러니까 企業이지 이것을 한번 빌려다가 다 갚아 버리고 그 뒤는 무엇을 합니까? 그것으로 事業이 끝나고 國家經營과 國民經濟는 終止符를 찍고도 自立經濟가 되고 自主經濟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所謂 借金成長한 나라로서 지금 說明한 借金의 生理, 이것을 잘 理解하고 이것을 잘 利用하는 사람이 다시 徹底하고 實際的인 借金哲學,信念과 더불어 內外資金의 操作技術을 가지고 體驗하고 배우고 있는 사람이 우리 國家經濟를 이끌어 나가고 經濟政策을 수립해 나갈 수 있는 資格者라고 할 수 있으며 國家經濟를 경영하고 알뜰하게 살림을 잘하고 살림을 늘려갈 수 있는 資格, 資質, 能力を 가진 사람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經濟成長에 必要한 資產을 늘려 나가고 勞動力を 活用할 수 있는 雇用의 增大를 圖謀하는 것이 바로 우리 經濟의 成長이고 國民所得의 增加가 되는 것이고 生活水準의 向上이 되는 것입니다.

政府가 이러한 政策을 施行해 나가는 初期에 四面楚歌의 反對와 沒理解를 물리치고 이러한 成長政策을 強行한 效果는 第一次, 二次經濟開發五個年計劃을 통해서 눈앞에 더 많은 굴뚝과 工場施設과 社會間接資本으로서 완연히 나타나 있고 國民의 衣·食·住面에 있어서 大端히 colorful한 image와 vision과 希望을 주고 있는 것은 아무도 否認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經濟는 푸른 하늘을 向하여 離陸한지 오래입니다. 또한 大海를 向해서 出帆한지 오래입니다.

내가 1965년에 뉴욕에서 열린 world-fair에 가보니 Kennedy 謂이 따로 있드군요 거기에 케네디가 한 말중에 “出帆이 重要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비겁한 船長이 自信을 못 가지고 바다로 나가지 못하고 埠頭가에서 自己배를 가지고 우물쭈물하다가 큰 暴風을 만나서 그 埠頭岸壁에 부딪쳐 배를 깨트려 버리는 수가 많습니다. 그럴적에는 파도를 헤치고 바다로 나가는 것이 더 安全한 것입니다. 그러한 意味에서 케네디前大統領이 出帆이라는 것이 더 重要한 것이라는 말을 했던 것으로 記憶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離陸한 飛行機는 지금 適當한 高度, 適當한 速度로 調整을 해가면서漸漸 安全한 航海를 계속하고 있는 것은 自他가 公認할 수 있는 狀態에까지 이르렀다고 봅니다.

저는 또한 나쁜 表現으로 말씀드린다면 1965년 3월 23일에, 잊어버릴 수 없는 이른바 單一變動換率制度, 外換率의 bloating system 을 斷行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歷史的인 出帆이었읍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單一變動換率制라는 것은 完全한 그것은 아닙니다. 소위 255원이라는 下限이 붙은 그러한 좀 跛行의 變動換率制度의 實施로서 大海로 出帆한지 오래라고 말할 수 있읍니다.

그동안 우리는 大海에 出帆과 並行해서 無償援助에서 有償援助로 옮기고 有償援助에서 貿易으로, 借款에서 投資로, 貿易自由化, 資本自由化, 物價의 自由化等 現實的인 政策潮流에 따라 體質의 改善과 體力의 연마와 產業의 合理化·政策推進에 餘念이 없었던 것입니다.

物價自由化 즉 國際水準으로의 現實化라는 것은 오늘 모든 自由世界 消費者는 같은 값에 같은 品質의 物品을 살 수 있는 權利를 意味합니다. 그런 消費者로서의 利益을 받을 權利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 意味에서 物價의 自由化라는 것은 새로운 하나의 國際經濟 또는 共同市場 이런것과 關聯된 思想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現實的인 政策潮流에 따라서 體質의 改善과 아까 말씀드린 우리 實力의 연마 即 產業合理化政策推進에 餘念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韓國經濟는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또 國際的으로 評價를 받고 있는 것과 같이 과거 4, 5년동안에 外形과 內容에 있어서 비약적인 高度成長을 이룩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러한 成長과 더불어 우리가 지금 看過해서는 안될 體質上 그냥 보아넘겨서는 안될 많은 脆弱點을 內包하고 있다는 것을 우선 여러분에게 明白히 제가 이자리에서 指摘해 두고 싶은 것입니다.

나는 勿論 韓國經濟의 將來에 대해서 悲觀論者도 아니고 또 단순한 樂觀論者도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注意論者라고 하는 것이 맞을는지 모릅니다.

또 이자리에 제가 나온 것은 무슨 韓國經濟의 成果를 자랑하려고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오

하여 우리 韓國經濟가 이러한 成長의 裏面에 많은 脆弱的인 그러한 體質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點을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제가 이 자리에 나온 目的의 全部라 해도 過言이 아닙니다.

흔히 經濟政策을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安定과 成長, 安定위에 成長 또 農業위에 工業發展. 農工併進 이런 말을 쉽게하고 이런 用語를 쓰는 것을 좋아하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자기가 무슨 經濟政策 또는 經濟에 對해서 造詣나 어떤 知識을 자랑하는 流行語로 쓰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用語는 이미 陳腐한 過去의 낡은 表現法이 되고 말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제가 먼저도 말한 바와 같이 우리가 깊이 認識하고 考察해야 할 點은 經濟成長에는 반드시 不安定要素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認識이 모든 經濟政策을 決定하고 決心하는 데 있어서 가장 重要한 要點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體制下에 實際經濟를 說明하는 立場에서 우선 韓國經濟의 特點, 그것보다도 脆弱點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말씀드렸고 또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가운데 그 點을 특히 強調하고자 합니다.

### 三. 經濟政策決定過程에 있어서의 調整과 經驗

여러분 科學徒앞에서 내가 이러한 事實을 말씀드리는 것만이 여러분의 學術探究의 資料로서 價值가 있을 것이며 또 그 義務感을 느끼고 있읍니다. 同時에 이에 對한 政策의 限目的開發이 必要하다는 것을 나도 과거에 그런 일을 했고 아직도 刑期가 남아 있기 때문에 여기 계시는지도 모르지만 政府當局者에 對해서도 彼此反省하고 警戒하는 素材로 檢討할 것을 advice하고자 합니다.

이 不可避한 不安定性을 除去하기 위해서 또 이것을 警戒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必要한 것은 物價安定政策입니다. 物價安定政策의 優先主義 이것이 가장 重要한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여러가지 處方을 우리가 同時에 지금 使用하지 않을 수 없을만큼 우리의 體質은 많은 病源과 病菌을 內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恒常 머리에 두지 않으면 危險한 結果를 가져올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意味에서 반드시 나는 그 萬能的인 効驗을 認定하는 것은 아니지만 古典의 通貨數量學說을 疏外할 수 없읍니다.

適正한 通貨量이라는 것은 아무도 모른다는 定說이 있읍니다. 그렇지만 亦是 우리는 큰 테두리 안에서는 通貨量主義를 否認하고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우리 經濟政策을 遂行해 나가는 데, 物價安定政策을 優先해 나가는 데 避할 수 없는 그러한 가장 重要한 要點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勿論 需要와 供給 生產과 消費量에서 形成되는 最近의 市場經濟, 市場價格의 自律의 安

全允의 役割 이런 것도 信奉해야겠지요.

또 그런 不安定한 氣流 不安定한 要素를 認識하면서 景氣의 上昇과 設備投資의 測定이라  
든지 景氣循環과 投資인프라의 警戒라든지 여러분이 다 工夫해서 아시겠지만 이른바 景氣  
動向指數를 測定해 나가는 데 있어서 物價의 上昇 Slide가 副應해 주는 刺戟的인 必要性 이  
러한 綜合的인 climate의 要素, 다시 말하면 電子計算機로서만 正確한 因果效果를 計算해 낼  
수 있는 것이지만 이러한 것의 綜合的인 檢討를 해 나가면서 發展過程의 均衡分析에 理論과  
實際 등 모든 것을 動員해서 一面 安定爲主論者 消極論者들을 說明해 나가면서 文字 그대로  
輸出·增產·建設의 實績을 國民의 눈에 보이게 하는 것이 獨走者가 아닌 障隘物競走者의 隘  
路였다는 것을 먼저 告白해 드립니다.

古典的인 Adam Smith의 이른바 invisible hand도 利用하고 現代經濟學의 泰斗인 Keynes  
의 또는 그의 후계자들의 學派가 主張하는 投資와 貯蓄의 發展理論도 우리가 消化하고 最近  
Johnson 대통령의 補佐官이었던 Rostow 같은 분들이 말하는 所謂 政治經濟學이나 그러한 사  
람들의 後進國開發理論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모든 tool등, 이러한 모든 新式舊式의 理論的  
武器들을 駅使하지 않으면 實事上 韓國經濟의 現實을 이 정도나마 安全하고 安定하게 끌고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여기에서 여러분앞에 率直히 저의 짧은 體驗을 통해서 먼저 紹介를 겸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環境下에서 저는 過去 3년수개월동안 經濟企劃院長官으로서의 모든 政策을 調整해  
왔습니다. 經濟企劃院長官이 모든 政策을 指示할 權限은 現政府組織法上은 없읍니다. 그러  
나 저로서는 때로는 越權까지 해가지고 그를 推進해 나가는 立場에서 많은 現實의 體質的  
인 與件의 制約를 받으면서 제가 밀고 나온 方法을 비유해서 말하면 正三角形의 中心 그 正  
三角形의 中心에다가 제 발다닥을 붙이고 그 발을 떼지 않고 位置를 잊어버리지 않고 거기에  
다 두고 所謂 좋지않은 氣流와 강한 바람속에서 韓國經濟라는 飛行機를 離陸直後에 飛翔高  
度를 維持하고 上昇하는 環境下에서 調整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安全高度를 維持하기 위해서 操縱桿을 꽈 불잡고 놓지 않는 것이 或 評者的 눈에는, 傍觀  
者の 눈에는 獨走 突進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저를 말하기를 獨走者라고 말한 사람이 있읍니다. 또 膨脹主義者라고도 말한 사람이 있었지  
만 저는 그러한 批判을 首肯하거나 容納하지 않습니다.

저는 과거 18년동안 銀行員이었고 그후 15년동안은 新聞記者입니다. 더구나 제 뼈속에는  
아직도 血液까지도 銀行員이고 銀行員의 體質을 가지고 있읍니다. 銀行員은 몸은 크지만 손  
은 작은 법입니다. 돈을 무서워하고 돈을 애끼고 모든 것을 規模있게 節約해 나가는 것이 銀  
行員의 根本的인 哲學입니다. 그 哲學에서 아마 죽을 때까지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한 正三角形이란 것은 무엇인가? 三角形에는 세가지 頂點이 있고

세가지 頂點을 연결하는 線으로서 三角形이 되는 것인데 그 첫 頂點이라는 것은 政治家들이 性急한 成長을 자꾸 눈으로 보고 싶어하는 政治의 意慾, 野心 이런것이 하나의 頂點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아직도 被援助國家이기 때문에 援助國家의 實務者들의 正統的인 經濟政策哲學에서 오는 現實主義壓力, 이것이 또 하나의 頂點입니다. 셋째로는 우리 有能한 政府官僚들 職業行政家들의 無事安逸主義라면 多少 語弊가 있겠지만 되도록이면 責任을 回避하려는, 좋게 말하면 安全主義 나쁘게 말하면 Salariedmanism 이것을 中立的으로 말하면 保守主義 이런한 Bureancracy 이 세개의 頂點을 連結해서 나타나는 그 三角形의 中心에서 自己位置를 잊지 않도록 努力하고 主張하고 때로는 제가 고집을 했던 것입니다.

저는 三角形은 때로는 圓形보다 安定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中心만 잊지 않으면 어디로 쓸어지든지 그 正三角形의 中心은 같은 點에 있고 그 方向은 이 飛行機의 目標地를 向하는 方向과 一致되는 것입니다.

現實的으로는 方法論에 있어서 行政府 内에서나 立法院關係에 있어서 立法院와 接觸에 있어서 저는 여러가지妥協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또 그것이 國民 여러분의 눈에는 그때 方向이 혼들리는 것 같은 그러한 認識을 주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三角形의 中心에 앉아서 볼 적에는 그러한 方法論의妥協은 方向의 倒錯을 가져오지 않았고 政策의 推進에 있어서 政策을 推進하는데 資料나 努力이나 知識의 差에서 오는 反對 即 障碍物을 除去하는데 오히려 能率의였다는 것을 率直히 告白합니다.

在任中에 있었던 換率現實化政策 아까 말씀드린 floating system에 依한 單一變動換率制의 斷行, 特關稅制度에 依한 輸入物資價格의 安定과 節約, 農地現物稅制度의 復活, 輸出增進을 위한 모든 行政上의 red tape의 切斷作業, 政府各部間官吏들의 ping pong 試合의 中止, 建設 및 用役業者, 越南進出 積極支援策, 年間技術者 一萬名派越推進, 金利現實化의 斷行, 外資導入法의 開放的改正과 迅速果敢한 導入政策, 對日・對美・對西獨, 其他 第三國 또는 AID를 비롯한 I.B.R.D 其他 國際經濟協力機構로부터 및 IECOK의 創設, 많은 저항이 있었던 公共料金의 現實化, 告示價格制度의 漸次的廢止와 協定價格制度에 依한 物價水準安定策의 誘導, 所謂 negative system, 試驗施行에 依한 國內產業合理化政策과 貿易自由化政策, 資本自由化制度의 刺戟的先導政策, project 借款에서 現金借款에의 移行으로 結局 物價를 刺戟하는 信用造出에 依한 內資調達 即 인프라 政策을 止揚하고 現金借款에 依한 外貨轉用을 同時に 履行함으로서 物價上昇의 gap을 주지 않는 內資調達의 方法으로 이 現金借款을 유도하도록 說得하는 등등 政策促進에 있어서 以上 말씀한 三角形의 中心推進政策이 有效한 方法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도 조금도 後悔하는 바가 없습니다.

이 方法은 아까 말씀드린 5·3, 6·8 선거후에 彙力關稅制度를 包含한 大稅制改革等等 15개 經濟政策 特히 分配의 均衡을 重點으로 하는 經濟政策을 立案 推進하는 데도 이 姿勢의 變

更 必要性을 느끼지 않았으며 第2次5個年計劃을 安定成長基調위에서 早期達成하는 行政技術로서도 信念의 動搖가 없었다는 것을 말해 두고자 합니다.

오늘날 第2次5個年計劃의 早期達成實績과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같은 早期達成의 自信의 基盤위에서 지금 推進되고 있는 所謂 大國土建設計劃의 根幹이 되는 高速道路의 完成速度와 國內經濟의 安定成長의 實績과 연관해서 여러분의 參考와 批判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 四. 通貨安定論과 韓國物價水準의 特質

지금 행정기관에 가보면 増產, 輸出, 建設이라는 標語를 볼 수 있고 最近에 새로 만든 高架道路를 지나오면서 오늘의 演題와 關聯해서 한가지 생각, 信念, 信仰이 머리위에서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러한 모든 所謂 社會間接資本, infre structure 지금에는 社會共通資本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마는 이런 것이 서울市 財政에 依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結局 그동안에 通貨價值의 安定에 依한 結果다. 돈의 힘의 變動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졌다. 돈의 힘으로 돈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다. 相對的인 物價의 安定, 輸入物資價格의 安定, 나가서는 勞賃의 安定으로서 이것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겼습니다. 나아가서 이 말은 오늘 韓國經濟의 成長, 다시 말하면 輸出의 增加, 生產의 增加, 建設의 진척은 결국 通貨의 安定을 基抽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自由黨治下 十餘年동안에 볼만한 아무 建設과 發展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所謂 當時의 換率의 上昇, 換率引上의 그 惡循環을 되풀이하는 인프레속에서 그나마 國民이 바친 稅金은 아무 形態도 남기지 못하고 結局 國民과 國民經濟에게 아무 image나 vision을 주지 못하고 쓰러져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애석하게 또한 통탄하게 여겨 마지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自由黨政權時代에 經濟政策의 失敗나 그 無氣力, 지나치게 말하면 80歲의 어린이 같은 無能한 政策에서 받은 자국이 밑거름이 되어 오늘날의 高度成長과 安定에 對한 政策에 우리가 눈을 뜨는 契機가 되었다고 自慰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失敗는 바로 우리의 資產이 되고 새로운 信念을 불러 일으켰던 것입니다.

本人이 政府에 3년半 있는 동안에 或者는 獨走를 한다고 말했고 或者는 膨脹主義者라는 批判을 했습니다. 이것은 將次 歷史家가, 統計가 證明할 것입니다마는 그러한 批判을 저는 全面적으로 首肯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자리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앞에 남겨두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經濟政策責任者の 한 사람으로서 當時나 現在의 信念은 먼저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는 過去에 銀行員이었다는 바탕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러한 金融人の 生理로서 볼 때 國民이 선거나 國民이 選擇한 行政府라 하더라도 마음대로 通貨量을 늘리거나 inflation을 일으키거나, 物價를 上昇시키는 政策을 慥行할 權利는 國民으로부터 委任받지 않

았다고 나는 그러한 생각, 政治哲學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法律을 만드는데 힘이 드는 制度, 豫算을 國會에서 通過시키는 애로가 많은 것이 이른바 民主主義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政府에 있는 동안 豫算審議에 있어서 또는 法律審議에 있어서 많은 피로움을 받았지만 저는 속셈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어떤 흐뭇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民主主義의 方向으로 바로 되어나가는 중화가 아닌가 하고 그 苦痛을 참았습니다. 때로는 必要한妥協도 했던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러한 생각이 제가 과거에 政策을 추진하거나, 새로운 政策의 決心이나 또는 그 政策을 위해서 討論하거나 할 적에 基本精神이고 基本姿勢이고, 크게 말하면 哲學이었던 것을 分明히 說明해 두고 同時に 後世에 實績과 統計로서 批判을 받을 自信과 責任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1944년이라고 생각합니다. 美國 Bretton Woods에서 한 協定에 依해서 國際通貨基金이라는 것이 創設이 되었으며 지금은 所謂 Bretton Woods 教條라고 그럴까, 教理라고 그럴까. 그 理念에 立脚해서 지금 國際的으로 通貨의 무순 本位制度라는 것은 없고 各國의 管理通貨制度가 實施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管理通貨制度下에서 物價의 安定政策이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自國通貨價值의 安定政策이고, 바로 國民生活의 安定政策이고, 福祉國家의 基本的, 政治的, 目的이라고 할 수 있으며 가장 重要한 唯一無二하다고 할 수 있는 社會的政策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意味에서 國家利益을 主張하는 政治家나 國民의 厚生을 目的으로 하는 行政家에 있어서 物價의 安定政策은 하나의 社會的 約束으로서 政策이나 信念이나 그런 表現보다도 높은 次元에서 이것은 하나의 信仰이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資本主義, 私有財產制度下의 經濟政策哲學의 始發과 終點과 限界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소위 交通整理의in 施策을 理想으로 하는 經濟行政에 있어서는 우리의 現實은 物價의 安定을 위해서는 過去에도 그랬고 또 現在도 그 一部에 있어서 이른바 混合經濟體制를 併行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二元的인妥協이 不可避하고 不可缺하다는 그런 所以도 여러분이 認定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國의 物價水準은,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living cost는 外國에 比해서 높은 것이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소위 購買力評價方法이라는 適正外換率測定方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living cost評價方法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지 않은가 봅니다. 이 living cost方法이 가장 適切한 外換率을 測定하는 方法이라고 생각한다면 韓國의 現在의 生活費水準을 볼때에 우리의 通貨의 對外價值는 過大評價되어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觀點에서 나는 最近 一部에서 대두하고 있는 外換率의 引上論에 對해서 反對하는 것입니다.

다시 韓國의 物價水準에 돌아가서 말씀드리면 韓國의 物價水準은 지금 세가지 handicap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여러분이 다른 나라보다 배나 비싼 高金利를 負擔하고 있고 둘째는 所謂 BA 政策 그것때문에 비싼 美國物資를 不得已 사고 있습니다. 세째는, 特關稅制度, 이 세 가지 나막신을 신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實際物價水準이 키가 커 보이는 것입니다. 그 나막신만 벗어버리면 지금 차차 굽을 얇게 하고 있는 중이지만 한국의 物價水準은 차차 더 얇아질 것입니다.

이러한 點은 오히려 韓國經濟體質의 強點의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經濟政策에 關한 問題는 現在 이 物價水準이 外國에 比해서 어느정도 높이나, 낮으나에 있는것이 아니고 또 外換率이 即 우리 通貨價值가 對外的으로 過大, 過小評價되고 있느냐, 안되고 있느냐 거기에 問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每年的 物價上昇率이 外國에 比해서 높은 狀態에 있다는데 問題가 있는 것입니다. 政府는 반드시 政策의 焦點을 여기에다가 두어야 할 것입니다.

## 五. 金利現實化政策, 內資調達方法, 現金借款是非

다음에는 좀 話題의 方向을 바꾸어, 是非가 많은 金利現實化는 왜 했는가 이 根源을 따져 올라가면 상당히 멀리 올라가야 됩니다.

解放直後 제 記憶으로는 그 混亂한 時代는 歸屬財產拂下經濟라고 이름붙일 수 있는 狀態에 있었습니다. 또 그 後에 6·24전쟁 몇년간에는 援助物資拂下를 中心으로 한 援助物資拂下經濟, 拂下景氣 이런 상태였습니다.

특히 그 援助物資拂下는 恒常 그 때 論議된 바와 같이 非現實的인 換率에 依해서 番 換率 番 값으로 民間에 拂下되었기 때문에 그 利益이 利權化했읍니다. 그런 關係로 因해서 現金이나 資金이 真正한 事業家나 生產者 및 企業家손에 들어가지 않고 엉뚱한 利權運動者나 權力關係者손에 많이 偏在되어 갔읍니다. 勿論 銀行에도 相對的으로 적은 金額이지만 浮動資產의 流入 또는 長期財源이 없지는 않았읍니다. 그러나 그 金利는 日帝時代의 惰性으로 因해서 아무 理論的 根據없이 얇은 水準에서 融資되고 있었습니다. 勿論 그것도 一般資金의 政要를 充足할 수 없는 도저히 不足한 量이었읍니다. 그러므로 먼저 말씀한 그 利權業者, 需治商人, 權力關係者들이 獨占하고 偏在하던 그 資金 即 現金은 자연히 高利資金으로 私債市場에 크게 나돌고 私債市場이 점점 크게 되어 소위 高利의 高利가 늘어남으로서 그 偏在 狀態는 점점 激化되어가고 高利私債市場에서 資金이 回轉하는 總量은 正常金融機關의 그것을 능가하는 이러한 惡循環이 發生하는 狀態에까지 이르고 말았읍니다.

또 한편 解放後 계속되는 인푸레造成으로 一部에서는 高金利보다도 높은 物價上昇率의 差를 노려서 換物思想이 旺盛해짐으로서 더군다나 市中의 浮動資金은 金融機關으로 環流되지 않았읍니다.

이러한 환경 하에서 量이 적으나마 金融機關에서 貸出되는 資金은 私債金利와 너무 差가 많았기 때문에 市中銀行의 融資自體가 하나의 利權으로 化했읍니다. 그래서 소위 政商 broker 金融 broker들이 暗躍을 하고 窮敗를 助長하게 되었든 것입니다.

이러한 亂脈相을 一刀兩斷으로 大手術하기 위해서 많은 制約과 抵抗을 받았읍니다마는 1965년 9월 30일 豫告했던 날보다 하루 빨리 政府의 慎重한 事前檢討와 數次에 걸친 外國金融專門學者들과의 意見交換과 外國援助機關과의 協議下에 銀行預金金利를 特히 定着性, 賯蓄性長期預金의 金利를大幅引上하는 大手術을 斷행했던 것입니다.

그目的을 政治的, 社會的, 經濟的理由로 셋으로 整理해서 말씀드리면 政治的으로는 소위 銀行金融의 利權化를 排除함으로서 權力層의 金融干涉과 金融 broker를 몰아 내자는 것입니다.

그다음 社會的理由로는 그當時 모든 사람이, 官公吏도 家庭婦人도 全部 高利貸金業者가 되어서 不勞所得層이 되는, 이러한 社會構造와 風潮, 이러한 國民間의 高利債權債務關係에서 오는 社會의不安, 不和, 不均衡을 없앰으로서 社會의 明朗化를 期하고 經濟的으로는 高利私債市場과 換物로 흘러가던 그 浮動資金을 吸收해서 소위 內資 即 生產 또는 運營資金을 normal한 正常金融機關을 通해서 放出케 하는 同時에 物價上昇率보다 높은 金利를 賦與해서 換物思想에 打擊을 주어 資金과 物資의 假需要를 없앰으로써 다른 여러가지 物價安定對策과 더불어 物價安定을 促進하는 效果를 가져오게 하는데 그 큰 意義가 있는 것입니다.

이政策은 第一段階에서는 예상이상으로 크게 成功했읍니다.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약 2년간에 400億이 1800億으로 늘고 지금은 2600億이 되었다는 말을 들었읍니다. 또한 이에 따라서 高利債市場이 縮少되고 또一部 남아있던 私債의 金利도 低下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一時의 逆金利조차 不辭한 大手術, 金利現實化政策의 窮極目的은 現代의 金融機構를 通해서 低利資金을 造出해 내는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物價의 安定에 따라서 物價의 上昇率보다 조금 높은 程度로 차차 金利를 내려가는 데 終局의 目적이 있었던 것인데 그 後 政策을 轉換시키는 이 低下政策이多少 涼遲한 點이 없지 않아서 最近에 다시 高金利市場이 또 머리를 들기始作한 이런 現象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一次의 目的成功的 意義가 低減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부터 段階의으로 政府當局者들은, 더 勇氣와 自信을 가지고 또 이 金利現實化의 貢獻 目的을 想起하고 強力한 物價安定策과 並行해서 預金과 貸出金利를 내려 가는데 適切하고 果敢한 政策을 쓸 自信이 있느냐, 여기에 문제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一部에서 소위 逆金利云云하고 있는 이 逆金利라는 것에 對해서 여기서若干 解說하고 넘어가려 합니다. 逆金利에는 여러가지 意味가 있는 것입니다. 最高預金金利가 最高貸出金利보다 비싸다, 그래서 逆金利다. 이렇게 단순히 新聞紙上같은데서 말하고 있지

만 金融機關에는 平均金利라는 것이 있습니다. 總預金에 對해서 支拂하는 總利子가 얼마인가, 總預金平均金利와 總貸出金에 對해서 全體 받아드리는 利子가 얼마인가, 그 計算에서 나오는 平均貸付金利가 있는데 이 總預金平均金利가 總貸出平均金利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것이 實質한 逆金利라 할 수 있는 것이고, 預金이나 貸出이나 하나의 比較例를 가지고 全部가 逆金利라 하는 것은 하나를 알고 全體를 모른다. 이렇게도 評을 받을 것입니다. 또 市中銀行에서 民間に 融資하는 그 金利보다도 韓國銀行에서 市中銀行이 再割引을 받는 金利가 비싼 경우에 그것이 逆金利다, 逆 margin이다. 이러한 定義가 있는 것인데, 最近에 通俗的으로 말하는 逆金利는 實質 嚴密한 金融論上의 用語와는 좀 다른 뉴앙스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나 이러한 破格의 高金利라는 것은 解說한다면 이것은 金利現實化라는 大手術을 하기 위한 하나의 麻醉劑로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麻醉劑를 써 가지고 資金을 빨아 들여서, 이 大手術이 成功해서,例컨데 맹장수출한 다음에 gas가 나오기 시작하면 手術의 成功을 證明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成功狀態로 돈이 둘기 시작할 적에는 麻醉에서 깨어서 正常體質로 돌아가도록 마취제를 쓰지 말고 即 金利를 낮추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마취제를 그대로 두고 있어서 韓國의 金融狀態가 아직 麻醉狀態에 있다는 것, 이런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金融經濟體質에 있어서 또 하나의 特異한 脆弱點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나 現政府에서는 또 現政策當局者들은 이미 두 段階의 高度引下措置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다음 jump를 準備하고 있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차차 이것은 當初의 目的이었던 低金利, 現代의 金融機關 機能에 依한 低利資金의 造出, 그런 方向으로 成功的으로 落着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지금 이 金利引下問題와 아울러서 當面한 우리나라의 最大의 經濟政策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非 inflation 政策와 內資調達問題로 縮少됩니다.

먼저도 말씀했지만 거의 民間資本이 없다고 할 수 있는 우리나라와 같은 國家에서는 지금 內資調達方法이 세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內資調達의 세가지 方法中에 첫째 方法은 傳統的인 方法, 이것은 國民貯蓄입니다. 그러나 그 國民貯蓄은 2600億까지 到達했다고 말씀했지만 이것으로는 도저히 不足합니다. 이것으로 二次五個年計劃事業, 또 지금 大國土建設事業을 비롯해서 高速道路建設이라든지 이러한 큰 事業에 必要한 資金을 充當하기에는 태반이 不足입니다. 그리고 또 이 銀行의 貯蓄性預金이 늘었다고 해서 그것을 全部 貸出해서는 危險한 것입니다. 貸出해서 預金을 만들면 僞裝預金 또는 擬制預金이 생길 可能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貸出이라는 것은 預金의 60乃至70%를 넘으면 그것은 overloan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點에서 이 方法은 거의 限界點에 到達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둘째로는 소위 信  
用造出方法 物價安定에 絶對 自信이 있을 적에는 政府가 國債를 發行하거나 韓國銀行에서 再

割引政策, 預金支拂準備金比率變動政策 金利政策 등으로 金融市場을 操作하여 通貨를 增發하는 政策을 쓰든지 또는 長期金融機關에서 復興債券 같은 것을 發行해서 信用創造를 하는 方法인데 이것도 지금 우리나라의 與件으로서는 大端히 制約이 있는 것입니다. 다만 지금 소위 市中銀行에 있는 貯蓄性預金과 또는 豫金支拂準備金으로 韓國銀行에 갇혀있는 資金과 長期金融機關에서 必要한 資金調達과를 연계적으로 連結시키는 方法, 이런 것이 어느 限界까지는 可能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 額數도 極히 制限될 수 밖에 없는 形便입니다.

그리면 第三의 方法은 무엇인가? 이것이 소위 現金借款입니다. 外國銀行 또는 世界銀行, 國際金融公社, 또는 國際金融機構로부터 現金을 빌리는 것입니다. loan을 하자는 것입니다. import loan      direct import loan 이 있고 indirect import loan 이 있는 것인데 그中에 가장重要한 것이 indirect loan 即 아무 끄나풀이 불지 않은 알짜 現金달라를 빌리는 것입니다. 本來借款이라는 것은 現金借款이 原則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解放後에 처음으로 소위 後進國支援政策이라고 할까, 後進國經濟協力方法으로서, 創案해 낸 것이 project 輸出, plant 輸出 이런 것을 先進國이 생각해 가지고 工場을 비싸게 팔아서 그 利益을 보고 또 그 돈을 外上으로 해서 그 金利를 받고 다시 말하면 稹으로 먹고 알로 먹고 그러한 借款方法을 創案해낸 것인데 우리는 借款을 받기를 처음으로 이런 借款을 먼저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借款은 이것밖에 없다. 이것이 元來의 借款이다. 이렇게 생각하기始作한 것입니다.

現金을 받아서 그 現金을 가지고 마음대로 全世界地域에서 제일 좋고 싼 物資를 마음대로 골라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진정한 借款입니다. 그러나 그 現金借款을 反對하는 사람들은 한쪽만 보고 덮어놓고 싫어하는 것입니다. 비싸야 年利 7%, 8%, 9% 程度밖에 안 되는 現金借款을 빌려다가 그것을 外換銀行에서 원貨로 바꾸어 가지고 지금 25.5%나 되는 定期豫金을 함으로서 그 金利의 差를 利益보려고 하려는 것, 그것은 現金借款이 惡用되는 경우입니다. 그 惡用되는 點을 두려워해서 現金借款을 反對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制度上 그 現金借款은 銀行에서 管理를 받게 되어 있어서 그것을 악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勿論不正을 하면 몰라도 지금 그것은 強制的으로 管理를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點에서 現金借款을 빌려다가 必要한 內資를 주기 전에 또는 주는 것과 同時에 이 外貨는 外貨대로 民間의 다른 需要者에게 팔아가지고 同額의 원貨를 回收해서 인푸레의 誘發을 막아놓고 또

外貨는 dollar로서 앞서 말씀드린것과 같이 무슨 消費材를 사다 먹는 것이 아니라 암탉이나 젖소를 또는 工場을 사드린다거나 工業原料, 輸出原材料를 사들여 온다면 이것은 二重의 利益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一部人士들이 덮어놓고 現金借款을 反對하고 있지만, 도리어 外國에서 韓國에 대해서 現金借款을 잘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해준다면야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으로서 內資를 만들고 한편 工場施設도 늘고, 原料도 늘고, 輸出도 늘고 이렇게 해야만 資金의 成長이라고 할까, inflation을 일으키지 않고 內資問題를合理的으로 解決할 수

“ 있는 것입니다.

多幸히 政府에서도 最近에 이런 點에 생각이 미쳐 가지고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海外에 財務官을 常駐시킨다든지, 外換銀行支店을 통하다든지 하여 有利한 現金 dollar를 借入하는 그  
런 方法을 지금 생각하고 推進하기 시작했고, 一面 外國에 銀行支店을 더 設置한다든지 또  
外國에 外國法人으로서 우리가 株主가 되는 金融機關을 設置한다든지 해서 現金을 받아들이  
는, 現金을 빌려오는 소위 現金借款과 外債發行 또는 短期融資 그런것도 끌어들이는 方針을  
쓰기 始作했습니다.

各 金融機關의 短期融資라는 것은 소위 當座貸越 限度設定같은 形式으로 할 수 있는 것인  
데,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恒常 같은 殘額을 回轉해 가면서 빌려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  
것은 오히려 長期 無期限現金借款이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런 것은 evergreen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國際金融의 technic 이 切實히 必要합니다. 지금은 國際金融資本主義아닙니까?  
國內的으로도 론물 國際的으로도 金融資本主義制度下에서 金融政策을 아는 사람이 經濟政策  
을 아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金融政策에 對한 經驗, 知識 이  
런 것의 不足때문에 년센스的인 曲解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國際金融市場情勢의  
情報不足과 國際金融의 操作, 運用技術의 未熟과 無知에 原因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  
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쉬운 政策知識은 國內外 金融政策에 관한 體驗技術과 더불어 內外  
金融政策의 貧困을 打破하는 劃期的인 大政策의 發展과 進步가 切實히 要請되고 있는 것입  
니다. 이 政策을 빨리 修習實行해야 하는 것입니다.

一例를 말씀드려서 日本이 저렇게 일어난 것이 다름아닌 cash loan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敗戰後 日本에 맨처음에 cash loan을 해준 美國銀行家로부터 그것을 내가 仔細히 들었읍니다.  
「Hanover Manufacture Trust Bank」의 Senior Vice President로 있는 그사람 얘기가 最初  
敗戰後의 日本에 對해서 7500萬달러를 빌려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시 50億弗까지 올  
라갔습니다. 그 빚을 빌려 가지고 日本이 저렇게 復興한 것입니다. 더구나 그 때 chance도  
좋았습니다. 그 後에 韓國戰爭이 일어나서 特需景氣가 일어났는데 亦是 아무리 特需景氣가  
일어났다 하더라도 日本이 外貨財源이 있어야 必要한 輸出用 原資材物資를 사드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全部 cash loan를 빌려 가지고 한 것입니다. 그것은 빌려서 빨리 계속  
회전시켜 가지고 通貨量은 올리지 않고 物價를 安定시켜 가면서 日本의 生產施設과 生產品  
의 量과 質을 올리고 內資를 調達하고 이렇게 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덮어  
놓고 現金借款을 反對하고 無視하는 이러한 本末을 頽倒한 政策論이 慣行하고 있는 것이 바  
로 우리나라가 後進國家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 六. 國際收支均衡과 國內財政收支 均衡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날 이 정도의 한국경제의 安定을 이루고 있는 二大支柱라고 할 수 있는 것은 亦是 外換率의 安定과 國內物價의 相對的인 安定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 事實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原因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外換率의 安定은 國際收支의 均衡인데 지금 우리나라는 이력저력 國際收支는 맞추어 나가는 狀態에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越南戰爭 以後에 貿易外收入 即 invisible income이 늘어 가지고 맞추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한 때 이른바 外換 inflation이라는 말을 여러분이 들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外貨保有高가 올라가는 同時에 外貨保有高가 올라가는 것만큼 그것을 政府의 國立銀行에 集中시키기 때문에 國內通貨가 그만큼 增發됨으로써 인프레가 일어난다. 그래서 소위 外貨放出策을 써야 한다. 이런말이 一時에 들았읍니다. 그러나 그것은 엿그제같은데 벌써 옛날 얘기입니다. 지금은 과거2년 가까운 기간에 많은 狀態의 變化가 있는 것입니다. 國際收支의 均衡 이것 때문에 外換率의 安定이 된 것, 이것은 오늘의 우리 經濟成長의 原動力이 되는 安定의 基礎가 된 것이고, 그것보다도 더 重要한 것은 우리 國內財政收支의 均衡, 다시 말하면 해마다 稅收가 急激히 늘은 것,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나라 經濟를 뒷받침하고 있는 큰 기둥입니다. 國際收支의 均衡에서 오는 換率의 安定도 먼저 제가 말씀했습니다마는 이것이 經濟成長에 原動力이 되고 있다는 것, 이런 點을 나는 再三 되풀이 強調하는 同時에, 一部에서 대두하고 있는 換率引上論에 대해서 絶對 反對한다는 저의 立場과 主張을 밝혀 두고자 합니다.

오늘날과 같은 소위 管理通貨體制下에서는 換率의 安定은 그대로 國力의 表示가 되는 것이고, 이것은 勞動力과 國民能力의 評價가 되는 것이고, 經濟安定의 絶對的인 要件이 되는 것입니다. 一時의in 輸出의 量的 增加를 위해서 換率引上을 主張하는 것은 皮相의in 公式論이고 國際經濟生理를 모르는 書生論이라고까지 해도 過言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昨年에 世界的인 金값의 波動을 여러분이 잘 記憶하실 것입니다. 파운드貨의 評價切下, 프랑貨의 危機, 우리는 이것을 目睹했읍니다. 最近에 mark 貨의 評價切上論에서 보는 것이지만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外貨도 요새는 자꾸 mark로 바꾸어야 할 形便에 있읍니다. mark로 바꾸어 놓으면 그것이 이익을 보게되는 것입니다. 지금 유럽뿐만 아니라 世界各國에 波及되고 있는 이런 經濟의in 動搖, 이런것을 우리가 볼 적에 換率의 安定이라는 것이 絶對의 으로 必要하다는 것을 立證하고도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쉽게 換率의 引上이라고 말하지만 이것은 바로 評價切下가 되는 것입니다. 國內의in 物價勞賃體系의 全面的in 動搖를 가져오게 되고, 變革을 가져오게 되고, 나아가서는 混亂을 招來하고, 物價가 오르고, 勞賃이 오르고, 이 정도나마 成長과 安定을 의룩한 韓國經濟에 十年工夫南無阿彌陀佛의 経果를 가져올 그럴 우리 體質의 脆弱性이 있다는 것을 다시 強調하

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物價의 全面的인 上昇으로 因한 인프레現象은 惡性的인 인프레로 發展할 念慮가 있는 것인데 이러한 인프레는 가진자가 안가진 者를 收奪하는 inflation입니다. 財產家가 勞動者나 農民이나 定額收入者를 摧取하는 結果가 되는 것이 inflation입니다. 이런 狀態로 發展할 蓋然性을 內包하고 있는 것입니다. 換率引上은 一部階層의 一時의인 利益만을 圖謀하고 全體를 잊어버리는 冒險性을 띠고 있는 것입니다. 國民全體의 財產價值와 勞動價值에 물을 타는것 같은 換率引上은 社會的으로도 危險千萬한 冒險입니다. 우리 國民經濟나 社社構造는 이러한 變革을 겪디어낼 수 있는 體質이 못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韓國의 經濟成長政策은 지금 量에서 質로 轉換을 檢討할 時機에 왔다고 봅니다. 소위 G.N.P의 量的增加가 반드시 所得의 增加를 말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G.N.P의 量的增加, 政府가 統計的으로 과시하는 G.N.P의 成長率, 이것이 그대로 國民全體의 生活水準과 所得의 向上을 實現하고 있는가에 問題點이 있는 것입니다. 未安합니다마는 官僚的統計의 標本이라고 할 수 있는 소위 per capita 國民總生產量을 國民의 人口數로 조갠 統計數字만의 上昇은 이것을 오히려 危險한 信號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퍼캐피타」는 자꾸 올라간다고 하는데 國民의 生活은 점점 어려워진다. 이렇게 될 적에는 그것은 가장 危險한 信號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디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意味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結濟政策의 要點은 國民全體의 生活水準의 向上, 特히 低所得層의 生活水準의 引上, 定額收入者の 生活保障, 中小企業의 繁榮과 中產層의 增加, 나아가서는 農工所得의 隔差를 縮少시키는데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質的이고, 社會的이고, 實質的 政策効果에 있는 것이지, 政治的인 統計行政이나 計量經濟나, 計劃經濟 亞流의 不正確한 統計 宣傳에 현혹되거나, 自己陶醉에 빠져서는 國民에게 虛脫感을 주고 말 것이고, 이런 點에 대해서 爲政當局者들은 뚜바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國民 各層間의 所得隔差를 줄이고 소우 G.N.P의 增加가 正比例해서 國民各層의 生活水準을 올리고 農漁村의 所得을 增加시키도록 하는 것이 오늘날 韓國政治의 根本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經濟政策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重大한 社會政策이고, 國家安全保障政策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時點에서 뚜렷히 認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七. 二次大戰後의 國際經濟協力潮流

지금 世界的인 經濟交流, 經濟協力의 潮流는 소위 東西南北 問題에 있어서 後進國은 先進國에 貿易自由化를 要請하고 特히 一次產品에 對한 關稅, 非關稅障壁의 撤廢를 要求하고 있습니다. 한편 先進國은 後進國에 對해서 資本自由化를 要求하고 있습니다. 지금 日本에 對해서 美國이 要求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나라의 66년에 改正된 外資導入法은

이 두가지 問題에 關해서 가장 開放的이고 進步의인 制度를 具備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韓國에 對한 外國人の 投資事業, 우리가 지금 希望하고 있는 石油化學工業이라든지, 電子工業이라든지, 加工貿易을 위한 合作投資라든지 單獨投資라든지 이러한 外國의 投資는 事實上 遲遲不振하다는 그런 事實을 알아야 합니다. 具體的으로 말씀드리면 日本人은 勿論 美國人조차도 지금 Singapole나 Hongkong이나 또는 臺灣보다도 韓國에 對한 投資를 주저하고 있다는 事實, 이러한 冷酷한 現實을 우리는 똑바로 認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事實을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은 經濟實力 養成에 있어서 새로운 각오와豫備策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입니다. 이것은 앞서 國際分業, 國際協力を 크게 強調했지만 그 裏面에 우리는 量보다 質의인 貿易對策을 미리 準備하고, 衣, 食, 住에 關한 自立體制에 對해서不斷히 自衛對策을 推進하면서 一面 準備를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最近같은 軍事情勢下에서 우리는 그러한 點에 平素에 注意를 하고 留意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理想的인 國際分業體制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無貿易狀態를 말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가장 經濟的으로 理想的이고 終局의인 國際分業體制다, 이렇게까지 理論的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五千年歷史를 자랑하는 우리의 先祖는 思想의으로는 頑固한 鎮國主義때문에 近代產業革命에서 우리가 落後되었지만, 五千年동안 우리 先祖들은 勤勉과 規模로서, 다시 말하면, 요새 말로 第二經濟思想으로서 남의 나라의 摧取는 받았지만 남의 援助는 받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이 自立經濟로서 生存해온 우리 先祖들의 그러한 부질없는自身과 自慢心이 오히려 近代產業革命에서 뛰떨어지게 한 鎮國主義思想의 뿌리가 되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는 이런 일들을 잘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先祖들이 先見之明이 없다는 것을 한탄하고 그렇게 評定하는 것이지만, 우리 民族의 信念으로서 남의 援助없이도 衣, 食, 住에 關한 限自立을 할 수 있고 그만한 先天的인 體質, 先天的인 能力を 갖고 있다고 하는 그런 信念은 重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韓國經濟에 뿌리깊이 가지고 있는 體質의 하나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經濟的인 事大思想도 두렵다는 것을 警告하면서, 또한 이 과거의 實績을 우리 祖國近代化의 窮極의 目標인 自立經濟達成을 위한 素地에의 自信을 새롭게 하는 精神的인, 物理的인 基礎를 삼자는 것입니다.

## 八. 大分配原理를 中心으로 爲論된 十五個 經濟政策

제작년 7월경 5·3선거와 6·8선거 이후 내가 아직 정부에 있을 때 大分配政策을 中心으로 하여 援助機關과 또는 與黨과의 合意下에 行政府로서 15個 經濟政策을 마련하여 선거후에 國民에게 政治보다 經濟를 經濟위에 政治, 農業위에 工業發展, 이러한 思想과 希望의 무

드」를 불러 일으키도록 했던 일이 있읍니다. 이것은 첫째 第二次 五個年計劃의 早期達成을 표방하는 것이며 그 根本原理는 亦是 分配政策의 重點, 分配의 公正, 所得隔差의 縮少, 이 러한데 要點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간단히 말씀하면 이것은 5·3, 6·8 선거를 겪는동안 政府, 與黨의 選舉運動을 통해서 體驗으로 알게된 國民與論을 中心으로 하여 이런 것을立案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羅列해 보겠습니다.

첫째 大稅制改革, 이것은 그 後에 斷行되었습니다, 「大」까지는 말하기 어렵게 되었지만 「中」程度로 해서 끝났습니다. 그中 注目할 것의 하나는 關稅法의 改正인데 이것은 가장 進步的인 彙力關稅制度였습니다. 이것은 다른 나라에도 드문 것입니다. 둘째로는 公正去來法, 처음에는 이것을 만들어 냈던 것인데 廢棄되고 最近에 다시 政府가 생각해서 現在는 「獨募占規制法案」이라고 이름을 바꾸어 가지고 다시 내는것 같습니다. 셋째는 不動產讓渡稅法」이 것이 그 後에 「不動產投機抑制에 關한 法律」로서 變名이 되어서 通過 되었는데 그 內容이 完壁하다고 할 수 없고, 立法 技術上에 問題點이 많이 남아있지만 가장 重要한 社會性을 지닌 法律입니다. 所謂 資本主義國家에서 모두 골치를 앓는 문제이고 언젠가는 이것이 큰 問題로 되는 것입니다.

都市에 있어서 土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만히 앉아있으면서 땅값이 몇십절 오름으로서 不勞所得을 하는 反面, 農村에 있는 사람은 그 땅값이 오르지 않을뿐만 아니라 金融의 惠澤까지 받지 못하고 있는 狀態, 即 相對的으로 땅價值가 떨어져 가는 그런 予盾입니다.

그런 격차, 그런 差別待遇, 이런 것이 社會問題화한다는 것은, 政府當局者로서 가장 重要視해야할 重大한 問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不動產讓渡稅法을立案했던 것인데 이 法에 대해서도 그 후에 무슨 여러가지 反對가 있어 가지고多少 緩和한다는 소리를 듣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저는 新聞記者로서 積極反對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것도 分配의 均衡과 關聯이 되는 것입니다마는 公共料金의 現實化, 一部都市에 계신 여러분들은 反對가 있었지만 이것 또한 分配의公正을 위하여 重要한 것입니다. 公共料金은 稅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結局 物價安定에 寄與하는 것입니다. 結局은 國民과 國家의 利益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亦是 公共料金의 現實化, 同時に 受益者 原則을 관철하지 않으면, 農民과 都市에 있는 사람과의 그것도 分配라고 그럴까, 어떤 利益均霑의 不均衡이 되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貿易의 自由化입니다. 여섯째는 農家經濟의 安定을 위한 農地所有上限制 徹廢, 農地所有上限制라고 하는것은 너무 舊世紀的 似而非平等主義의 所產이었고 祖國近代化를 할려면 農地所有의 上限制부터 徹廢해야 되는 것입니다. 農村經濟의 近代化부터 해야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저는 全面的인 徹廢를 主張했는바 그후에 그 限度가 좀 올라가는 程度로 變更이 된것으로 압니다.

그다음에 重要한 것은 農地擔保 長期年賦低利融資制度의 復活, 農地擔保融資의 길이 막혔

던 것은 너무나 素朴한 非經濟的인 無識에서 나온 重要한 過程의 하나였다고 봅니다. 農民에 對해서 營農資金이라고 해서 쥐꼬리만한 資金을 均等配給할 程度, 이런것이 金融이고 政策이라고 어림없는 생각을 하는 것 부터가 모든 害毒의 根源이 되었던 것입니다.

農民도 自己責任下에 그 國家의 金融制度에서 언제든지 金融을 받아가지고 種子도 改良하고 耕地整理도 하고 所謂 企業農業도 試圖해보고, 畜產 養蠶等 副業收人도企圖하고, 그런 自立의 길을 열어주어야 되는데, 그런 길을 막았다는 것은 重大한 差別의 結果가 된 것입니다. 같은것이 都市에도 있어요. 都市計劃線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 대지를 擔保로는 움자를 안해 주는것, 이것은 말도 안되는 모순된 制度입니다. 都市計劃線에 들어간 이 土地야말로 가장 가까운 時期에 現金化할 수 있는 擔保입니다. 다시 말하면 死刊宣告를 받은 사람의 生命保險證券을 擔保로 받고 融資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덟째는 農協의 改編, 過去의 農協金融組合에 有爲한 人材와 實務家가 많았는데 다 分散되고 지금은 없읍니다. 農協에는 지금 地方보스같은 사람들이 專務니 뭐니 도사리고 앉아 있는 것이 적지 않고 제 機能을 發揮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그것을 政府나 여당이 선거를 통해서 절실히 느꼈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大改革을 主張했고 里洞組合이라는 것을 없애도록 改正하자고들 合意했는데 웬일인지 그때는 모든 사람이 同意했다가 제가 그만둔 뒤에는 그것이 實現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홉째는 소위 農協에서 金融機能을 떼어내야 합니다. 金融機關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獨立的으로 있어야 되는 것이지 다른 事業과 같이하면 잘 안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벌써 1년半前에 主張을 했는데 最近에 와서 이제 겨우 農水產銀行이라는 것을 만든다는 說이 있읍니다.

그다음에 國營企業體의 民營化, 이것은 많이 實現되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는 公務員들의 果敢한 待遇改善 이것도 하나의 經濟政策입니다.

다음에는 低所得層 最低所得層의 所得을 向上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全體的으로 所得을 올리기는 힘들지만 이「카드크라스」程度만은 우선 하기가 쉽습니다.

다음으로는 소위 제가 政府에서 하고싶어도 못한 일이 있는데 軍人的 副食을 改善해 주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亦是 人材登用입니다. 情實人事排擊, 地方色의 排除, 이것을 有志識者들이 斷行하자는 官民間의 運動, 이것도 經濟政策이라고 나는 主張했던 것입니다. 이런것을 안하면 祖國近代化라고 하는것은 空念佛이 되고 만것입니다.

마지막으로 家族計劃과 移民政策, 이것은 가장 效果가 確實하고 百發百中할 수 있는 生活向上을 위한 經濟政策입니다. 以上이 15가지 政策이었읍니다.

끝으로 여러번 반복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항상 警戒하고 우리 知識人, 知性人

으로서 正確하게 알고 나가야 할것은 우리 經濟體質이나 實力を 過大評價하거나 그런 統計에 현혹되지 말고 眞實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特히 近來 韓國을 援助해온 美國이나 其他 外國 또는 國際協力機構에서 韓國經濟의 復興과 繁榮에 對해서 칭찬하는 소리가 자자합니다. 그저 무슨 會議만 있으면 언제나 韓國復興이 표본으로 나오고 칭찬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솔직히 말해서 나는 外國 사람들이 韓國經濟의 實力を 과대 평가하고 있다고 봅니다. 누구보다도 우리는 自身을 잘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 過大評價하느냐, 外國人們의 韓國經濟에 대한 과거의 評價속에는 우리가 曲解를 하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의 政治的인 目的이 混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自己들이 韓國에 援助를 잘했고 經濟協力を 잘했다는 그런 効果를 形式的으로 誇示하기 위해서 宣傳하고 또 宣傳에 利用하고 있는 點이 없지 않습니다 여기에 對해서 우리 自身은 우리의 實력을 우리만은 똑똑히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오늘 과대평가했다가 내일 또 過少評價하더라도 아무 책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 이것을 또 우리의 友邦國家, 援助國家의 激勵나 忠告로서 받아들이고 특히 좋은面으로 본다면 우리 自身보다도 그 사람들이 우리 經濟를 바로 보고 있지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勿論 너무 自信을 잃는것도 禁物이고 지나친 自信을 갖는것도 위험합니다. 내가 여기에서 한가지 여러분에게 꼭 하고싶은 말은 能力이나 體力이 같은 即 人間의 素質이 別差異가 없는 다시 말하면 經濟的인 生產能力의 別差異가 없는 民族과 人間은 時期의 美는 있을지 몰라도 그 政府 政策의 如何에 따라서 結局 어느 時期에 가서는同一한 生活水準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 最近의 새로운 後進國開發理論의 原理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日本 사람하고 個人的으로 보아서는 하나도 能力의 差異가 없지 않아요, 언젠가는 그 사람들과 똑같은 經濟的水準에 갈수가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한 信念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經濟開發을 하고, 이런 姿勢로 推進해 나간다면 우리는 그 시기를 一短縮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2차대전후의 國際經濟協力思想, 나아가서는 自由陳營國家間의 共存思想, 國境없는 經濟國家 共同市場, 이런 새로운 共存理念에서 오는 後進國 開發援助理念의 새로운 傾向에 눈을 뜨는 것이다. 이렇게 評價할 수 있는 것입니다. 敗戰國 日本, 獨逸을 보십시오. 지금 美·英·佛등 戰勝國家의 生活水準을 凌駕하는 經濟實力を 갖추고 있다는 것도 우리의 이 信念을 立證해 주는 것입니다.

흔히 하는 말이지만 쉽게 말하여 결국 우리하고 잘 살 수 있다. 우리와 같은 人間의 素養素質을 가진 사람의 最高水準에 갈 수 있다. 이런 自信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 目標를 向해서 가는 것이 오늘 내가 말씀한 바와 같이 우리 經濟가 가지고 있는 體質을 改善해 나가면서 우리 경제가 나가야 할 進路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韓國經濟의 進路와 方向의 指針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 九. 結 言

꼴으로 世上에서 말하는 所謂 獨走 3年5個月에 對한 저의 所懷의 一端을 말씀드릴 것을 容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선 政府에서 獨走를 한 것이 아니라 障碍物競走를 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1964年 5月 11일에 政府에 들어갈 때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있는 것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지만, 막상 들어가 보니까 시누이가 170명이나 있어요 이 170명의 시누이란 여야국회의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부 이 사람들이 소위 國民의 代表다. 이런 選良意識으로서 主人노릇을 할려고 드는 것입니다. 事事件件의 國務에 干渉하는 것은 勿論 個人的인 態度와 그 言行에 對해서도 일일히 批判과 不平, 不滿과 干渉을 하는데는 질색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읍니다.

그 外에 行政府・立法府・司法府를 비롯해서 또는 모든 憲法機關을 包含해서 日常 經濟企劃院長官이 하는 業務를 監視하고 督勵하고 干渉하고 犯罪를 일으키고 不正確한 자극적인 情報趣味와 不足한 知識을 가지고, 솔직히 말씀하면 無識입니다마는 事實上 여러모로 괴롭히고 神經을 쓰게 하고 國務를妨害하는 데 큰 苦痛을 느꼈읍니다. 이러한 機關이 얼른 내가 써어보아도 42개나 있어요. 그중에 거의 半 이 내가 하는 일에 對해서 事前에 議論하기를 希望하고 事前에 알리지 않으면 심사를 부리고 트집을 잡는 것입니다. 이러한 障碍物의 Jungle 속에서 무슨 재주로 獨走를 하겠읍니까? 障碍物이 있으면 있는대로 내가 더욱 勇氣를 내고 그 障碍物을 排除하면서 밀고 나가려는 態度나 姿勢가, 或 獨走하는 것처럼 보였다면 오히려 천만다행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長官를 하고 會議를 하고 있었는데 차차 代理人를 내보내드군요. 나중에 보니까 어느듯 나는 主事들과 會議를 하고 있는 自身을 發見했읍니다. 그래서 아, 이것이 獨走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읍니다. 그러나 主事들과 會議를 했다고 해서 오히려 効果가 나면 났지 失望하지는 않았읍니다. 行政의 速度는 더 促進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나는 「general and captain」 이런 氣分으로 일한 것입니다. 平常時에는 司令塔에서 指導를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一線 땅바닥에 쫓아 내려가서, 싸워야 했읍니다. general and captain이 아니라 general and surgeon 氣分으로 敵을 물리칠때는 直接 銃으로 쏠 각오를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러한 執務姿勢로서 주제넘게도 祖國近代化의 文字 그대로 거름이 되면 그것이 政府에 들어간 本意라고 決心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事態에는 勇氣를 복돋았을당정 놀래지는 않았읍니다. 생각천대 行政이라는 것은 結局 누가 해도 한번은 失敗한다는 그런 諦念도 가지고 있었읍니다. 어떤 사람이 所信을 가지고 目標를 向해서 前進하다가 障碍物에 걸려서 쓰러지면 그 다음에 baton을 받는 사람이 그 經驗 그 시체를 밟고 넘어서 그 시체를 징검다리로 해서 그 시체가 쓰러진 方向으로 前進을 거듭하는 것이 오히려 祖國近代化라는 作業의 本然姿勢이고 그 밑거름이 되는 것이 歷史的인 現實이 아닌가

하는 정도의 覺悟까지도 가지고 政府에 들어가기로 決心을 했던 것입니다. 政府에 들어간 初期에는 물물은 손을 쫒쌀무더기에 집어 넣었을적에 쫒쌀이 많이 끓어나오는 것과 같은 그런 施策效果의 재미도 보았습니다. 또 「매신전」으로 四方의 敵을 물리치는것 같은 그런 스플烈적인 戰果도 느꼈고 그럴적마다 가장 평판이 나쁜 經濟政策責任者라는 것은 가장 有能한 責任者일 수가 있다는信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自己所信과信念을 貫徹해 나가는 경우 굽히지 않는 경우, 내가 政府에서 물러날 때는 輿野 절대多數에 依한 解任建議案의 통과로 因해서 물러나거나 그렇지 않으면 意見을 달리하는 上級責任者로부터 龍免을 당해서 물러나가야 마땅하다고 이렇게 平素에 覺悟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때로는 四面楚歌속에서 危機를 모면하는 thrill도 充分히 맛보았습니다. 모든 것은 後世 批評家の 公正한 評價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所信에는 오늘도 秋毫의 後悔나 動搖도 없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政府에서 일하고 돌아올 때에는 해골단을 벌어서 찾아 가지고 올만큼 粉骨碎身해야 한다는 말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多幸히도 3년5개월 동안에 살덩이 한 貫半을 잃어버렸을 뿐입니다. 무게가 한 貯半이 줄었어요.

冒頭에서 제가 刑期 2년중에 6개월이 남았다는 말씀을 했는데 저는 무슨 罪가 있어서 2년의 刑期를 치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政府에서 일하는 自體가 하나의 罪를 犯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겸손한 姿勢는 必要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지금 받고 있는 無形의 罰科에 아무 不平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政府에서 일하는 동안에 有形無形의 많은 所得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중 가장 큰 것은 3년반동안에 齒科病院에를 한번도 가지 않았습니다. 이가 좋다는 것은 人間五福의 하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3년반동안에 五福의 하나를 누린 셈입니다. 옛날말에 소위 名宰相은 아침에 입에 물었던 밥을 세번 뱉어야 하고 상투를 아홉번 다시 짜야 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君主專制體制國家에 있어서도 長官은 當時의 所謂 剋書라도 공복으로서는 別수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亦是 그때도 아침새벽에 自己보다 地位가 얇은 사람이나 市井의 匹夫野人이 찾아오드라도 입에 물은 밥을 뱉고 상투를 뱗던 머리를 한쪽 손으로 불잡은채로 일일이 만나주지 않으면 않되었던가 봅니다. 제가 政府에 있을 동안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일어나기 前부터 電話가 옵니다. 이 電話は 大部分 먼저 말씀한 시누이들이나 不平不滿을 가진 事業家들에게서 오는데 이 전화를 받아 주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런데 아직 자리속에 있을적에는 오히려 괜찮은데 화장실에 들어가서 이를 닦을적에 電話가 오면 아주 困難합니다. 치솔을 물고 한 서너번 닦자면 전화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할수없이 치약을 뱉고 전화를 받고나서 또 이를 닦아야 되는데 이것을 하루에 세번 네번 되풀이하게 되니까 이를 세번 네번 닦게되니 이가 좋아질 수밖에 없지요. 화장실에 다섯대의 전화를 가지고 있는것은 사실이고 아직도 그 전화가 있습니다. 지금도 勿論 이를 닦는 동안에도 전화가 오면 받습니다마는 그 後에는 좀 기술이 늘어가지고 치약을 뱉지

않고 전화를 받는 方法을 알게 되었어요 人間五福의 하나인 齒牙가 좋아졌다. 이 말씀을 드림으로서 그 愉快했던 「獨走 3년의 회고」의 하나를 피력하고 오늘의 저의 변변치 못한 말씀을 끝마치겠습니다.

오랫동안 감사합니다.